

碩 士 學 位 論 文

일 본 어 「わけだ」 용 법 고 찰

指 導 教 授 金 勝 漢



濟 州 大 學 校 教 育 大 學 院

日 語 教 育 專 攻

姜 昭 熙

2006年 8月

일본어 「わけだ」 용법 고찰

指導教授 金勝漢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姜昭熙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年 8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일본어 「わけだ」 용법 고찰

姜 昭 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勝 漢

「わけだ」는 일본어의 회화체와 문어체의 문말(文末)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한국어로는 「것이다」, 「셈이다」, 「할 만하다」, 「당연하다」 등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그 용법을 명확히 알고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わけだ」는 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회화체이나 문어체이나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わけ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지 외국인 학습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わけだ」가 쓰이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크게 긍정형식, 의문형식, 부정형식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와 용법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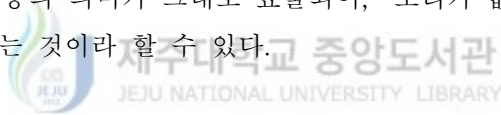
첫째, 긍정형식의 「わけだ」는 「わけ」라는 형식명사에 「だ」가 결합한 것으로, 실질명사 「わけ」의 자립적인 의미는 표출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わけだ」가 접속한 사항은 어떤 전제사항으로부터 논리적인 이치를 거쳐 출현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わけだ」의 용법은 문을 이루는 사항간의 관계에 따라, 귀결·결과를 나타내는 용법, 필연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용법, 남득을 나타내는 용법, 앞의 의미하는 바를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내는 환언용법, 그리고 객관성을 띤 기정사항임을 암시하는 용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わけだ」의 의문형식 「わけですか」는 어떤 사실을 전제로 논리적인 이치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에 따라 추측·판단되는 사항을 확인하여 묻는 경우나, 어떤 의문사항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에 사용된다. 단, 상대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わけ?」라는 형태로, 비난의 뉘앙스를 나타낸다.

셋째, 「わけだ」의 부정형식 「わけではない」, 「わけにはいかない」, 「わけがない」는 모두 「わけ…ない」라는 공통된 형태를 갖으면서 앞의 사항을 부정하면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각각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모두 다르다. 먼저 「わけではない」는 어떤 전제사항으로부터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항이 실제로는 성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표명하는 경우에 쓰이는 부정표현이다. 반면, 「わけにはいかない」는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적인 면에서, 화자의 행동이나 의지가 뜻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부정표현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わけがない」는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생각하면, 절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항임을 화자가 확신하여 주장하는 경우에 쓰는 부정표현으로, 실질명사 「わけ」의 “이치·도리”등의 의미가 그대로 표출되어, “도리가 없다”, “이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선행연구 검토	2
II. 긍정형식 「わけだ」의 용법	6
2.1. 귀결·결과	7
2.2. 필연적인 이유	10
2.3. 납득	12
2.4. 환언	15
2.5. 객관성 암시	18
III. 의문형식 「わけですか」의 용법	21
3.1. 판단확인	21
3.2. 의문	23
3.3. 비난	25
IV. 부정형식 「わけ…ない」의 용법	27
4.1. 「わけではない」의 용법	27
4.2. 「わけにはいかない」의 용법	34
4.3. 「わけがない」의 용법	38
V. 결론	41
参考文献	44
Abstract	47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わけだ」는 일본어의 회화체와 문어체의 문말(文末)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한국어로는 「것이다」, 「셈이다」, 「할 만하다」, 「당연하다」 등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고 있는¹⁾ 만큼, 학습자들이 그 용법을 명확히 알고 활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わけだ」는 (1)예문처럼 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문어체이나, 회화체이나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わけ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지 외국인 학습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 (1) * 今夜は日本対ブラジルのサッカーの試合があるから、塾をさぼることにした**わけ**である。²⁾

-
- 1) (예시) · 彼がそう言ったら、要するに自身がある**わけ**ね。 (문형짜이야 : p779)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요컨대 자신이 있다는 **거네**.
· 彼が勤え年で30なら、つまり私と同い年な**わけ**だ。 (문형짜이야 : p779)
그가 **달력**나이로 30이면, 결국 나랑 동갑인 **셈**이다.
· なかなかハンサムだなあ。みんなが好きな**わけ**だ。 (문형짜이야 : p778)
꽤 잘생겼네. 모두가 좋아**할 만**하다.
· 苦しい**わけ**です。熱が40度もあるのですから。 (『日本語教育辞典』 : p1604)
괴로운 것도 **당연**해요. 열이 40도나 있으니까.

2) 吉川武時(2003), 『形式名詞がこれで分かる』, p146참조.

(1)예문은 만약 회화체로 발화된 문장이라면, 화자가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한 발화임을 표명하기 위해 「わけだ」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문어체에서는 객관적인 논리진개가 보이지 않으므로 어색한 문장이 된다.

또한, 「わけだ」는 다른 표현들과는 달리 「わけではない」, 「わけにはいかない」, 「わけがない」처럼 여러 복합적인 형태의 부정형식을 갖는다. 이들은 각각 전혀 다른 용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속하는 사항에 따라서도 의미차이가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わけ…ない」라는 공통된 형식 때문에, 학습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わけだ」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わけだ」의 의미·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わけだ」 표현이 쓰이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크게 긍정형식, 의문형식, 부정형식 세 가지로 나누어 「わけだ」가 쓰이는 문맥이나 형식상의 특징, 그리고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해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예문에 있어서는 일본 신문이나 드라마·영화 대본, 그리고 여러 서적 등에서 발췌하였고, 그 외에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했거나 매우 일반적이고 간단한 예문인 경우는 문형사전이나 학자들의 예문을 그대로 재인용하였다.

1.2. 선행연구 검토

「わけだ」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わけだ」의 의문형식이나 부정형식에 대한 연구보다 긍정형식의 「わけ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에서는 긍정형식 「わけだ」에 대한 여러 연구흐름을 살펴보고, 이 논문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わけだ」용법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타난다. 이를 차례

대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わけだ」 앞의 두 사항을 P와 Q라 하고, 그 관계분석을 통해 「わけだ」에는 설명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寺村(1984), 野田(2002)를 들 수 있다.

먼저 寺村(1984)³⁾는 「わけだ」를 기본적으로 「P→Qわけだ」라는 문의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 하고,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P를 들어 설명하거나, P가 갖는 특별한 의미, 의의 등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설명’의 ムード(mood) 표현이라 하고 있다.

野田(2002)⁴⁾도 寺村와 마찬가지로 형태적인 면에서 문의 구조를 파악하여 「わけだ」가 붙은 절을 Q라 하고, 선행하는 문이나 상황을 P라 하여 「わけだ」 용법을 분석하고 있다. 野田은 P와 Q사이에는 항상 논리적 필연성이 나타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설명’을 나타내는 ムード형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의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의 유형을 나누어 「わけだ」를 고찰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奥田(1992)와 益岡(1991)를 들 수 있다.

먼저 奥田(1992)⁵⁾는 ‘설명’의 구조를 <설명하는>과 <설명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두 사항 사이에서 성립하는 논리적 관계에 따라 설명의 유형을 「つけたし的な説明(원인을 분명히 하는 설명)」, 「ひきだし的な説明(결과를 분명히 하는 설명)」⁶⁾로 나누고 있다. 이 중 「わけだ」는 「ひきだし的な説明」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第Ⅱ巻』, くろしお出版, pp272~285참조.

4) 野田春美 外(2002),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pp230~259참조.

5) 奥田靖雄(1992), 「説明(その2) -わけだ」 『言葉の科学5』, むぎ書房, pp187~189참조.

6) a. つけたし的な説明 結果としての出来事 ← 原因としての出来事
(道がぬかるんでいる) (雨がふったのだ)

b. ひきだし的な説明 原因としての出来事 → 結果としての出来事
(雨がふった) (道がぬかるんでいるのだ)

그리고 益岡(1991)⁷⁾는 ‘설명’의 문의 구조를 설정된 과제에 대한 해답을 나타내는 <주제-해설>형으로 보고, 「주어진 사항에 대한 이유와 사정」을 진술하는 설명을 ‘배경설명’, 「주어진 문에서 무엇이 귀결 하는가」를 진술하는 설명을 ‘귀결설명’이라 하여⁸⁾, 「わけだ」는 ‘귀결설명’에 해당한다고 진술한다.

세 번째는 横田(2001)⁹⁾의 견해로, 横田는 「わけだ」의 용법을 화자의 사항인식 순서와 사항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원인이나 이유 → 현재의 상황 → 결과’라는 것이 사항의 객관적인 흐름이라 한다면, 화자의 인식은 항상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결과’로 미치기도 하고, ‘현재의 상황→이유’로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유가 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납득하는 인식의 흐름도 나타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며, 「わけだ」는 이러한 인식의 흐름 뒤에 접속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는 「わけだ」가 결과사항에도 접속하고, 이유사항에도 접속하는 이유를 통일적으로 설명하고, 「わけだ」에 ‘설명’의 기능만이 아닌, 화자 스스로가 납득하는 용법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 「わけだ」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わけだ」에 대한 용법분석은 공통적으로 「わけだ」문의 구조를 이루는 사항간의 관계성과약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わけだ」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사항간의 관계성분석을 통해 고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7) 益岡隆志(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pp139~154참조.

8) a. 花子が泣いている。大事なカードがなくなったのだ。(배경설명)

b. 当時は、一期校と二期校に分かれていた。チャンスが2度あったわけだ。(귀결설명)

9) 横田涼子(2001), 「文末表現「わけだ」の意味と用法」 『東京外国語留學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論集』(27号).

「わけだ」의 긍정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나타내는 문말표현으로서 그 의미를 분석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わけだ」의 용법을 크게 긍정형식, 의문형식, 부정형식으로 나누어 고찰함과 동시에, ‘설명’이라는 단일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わけだ」가 갖는 용법적인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II. 긍정형식 「わけだ」의 용법

「わけだ」는 형태상으로 보면, 자칭 실질명사 「わけ」¹⁰⁾에 「だ」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문말표현으로서의 「わけだ」의 「わけ」는 실질명사 「わけ」와는 다른 성질을 갖는다. 그 근거로서 다음의 (2),(3)과 (4)의 예문을 살펴보면,

- (2) 置れたわけを言いなさい。
- (2') 置れた理由を言いなさい。
- (3) ここにかいてあるのが、わたしが置れたわけです。
- (3') ここにかいてあるのが、わたしが置れた理由です。
- (4) 高速道路が渋滞していた。それでこんなに置れたわけです。
- (4)* 高速道路が渋滞していた。それでこんなに置れた理由で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野田 2002 : 236)

(2),(3)의 「わけ」는 “이유”나 “사정” 따위의 명사와 바꾸어 써도 문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4)의 「わけ」는 “이유”나 “사정”으로 해석하면 문이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의 「わけ」는 (2),(3)의 「わけ」와 표면상으로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유”나 “사정”이라는 자립적인 의미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형식화되어, 「わけだ」 전체가 어떤 새로운 문법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따라서 「わけだ」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わけ」라는 실질명사와 구분

10) 『日本国語大辞典』에서는 실질명사 「わ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物事の違いなどを判別すること、区別、違い
- ② 事柄やことばなどの意味・内容
- ③ 物事の筋道、道理
- ④ 深い事情、いきさつ、また、物事の原因・理由
- ⑤ 特に、事情やそのいきさつ、また、色の道に通じていること
- ⑥ 遊離の習慣や作法

하여, 「わけだ」 자체가 갖는 문법적인 성질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이처럼 하나의 문말표현이 되어버린 「わけだ」가 문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어떠한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용례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문과 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미파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わけだ」문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점선으로 표시하여 P라 하고, 「わけだ」가 접속하고 있는 사항은 밑줄로 표시하여 Q라 하겠다.

2.1. 귀결·결과

(5) 2004年だから12年前。20歳の学生だとまだ8歳なわけですね。

(ジャーナル8 : p37)

(6) 子供が小学校に上がると一安心,かと思っていた。ところが大間違い。

小学校に入ったのは子供だけではなかったのだ。親もまた、小学校生活に入る。うちは長女と次女が4歳違いだから、私は10年間の小学校生活をするわけだ。 11)

위의 (5),(6)의 예문을 살펴보면, 「わけだ」가 접속한 Q사항은 순접접속을 나타내는 접속표현인 「と」, 「だから」로 P와 연결되어, P에 대한 어떤 귀결·결과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에서는 「2004년이면 12년 전. 그럼 20살 학생이라고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직 8살」이라는 사항은 당연한 귀결사항이고, (6)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부모 또한 다시 초등학교 생활로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10년 동안 초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항은 화자의 「장녀와 차녀가 4살 차이가 난

11) 인터넷 웹 검색 (<http://niju.cocolog-nifty.com/cxj/2006/01/index.html>)

다」는 사실로부터의 당연한 귀결사항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わけだ」는 어떤 전제 P를 기준으로 추론하면 당연히 Q라는 귀결·결과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P라는 전제사항은 (5)처럼 가설일 수도 있고, (6)처럼 기정사항일 수도 있다. 단, Q의 전제가 되는 P는 항상 문맥에 나타나 있거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 근거로 (7)과 (7')를 살펴보면,

(7) 身長を測ったら、152センチになっていた。去年は140センチだったから、12センチも伸びたわけだ。 (吉川 2003 : 27)

(7') (去年は140センチだったことを相手が知らない場合)

* 身長を測ったら、152センチになっていた。12センチも伸びたわけだ。

(7)은 키가 작년에 비해 12cm 자랐다는 논리전개를 모두 제시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Q사항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을 「わけだ」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7')는 「わけだ」를 통해 Q가 당연한 귀결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대는 화자가 작년에 키가 140cm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Q사항을 당연한 귀결로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7')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だ」는 사항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인 관계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쓰이기 어려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わけだ」는 “Q는 P로부터의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화자의 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론의 과정을 그대로 표출시켜, 상대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러한 「わけだ」 표현은 (8)과 같이 상대로부터 P사항을 알고, 그에 대

12) 劉向東(1996) 「「わけだ」文に関する一考察」 『日本語教育』 88, p50.

한 당연한 귀결사항을 화자가 추측, 판단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8) 亜樹：きのうのお昼にね、橋に行ったの。

知佳：ああ、毎週恒例の？

亜樹：「亜樹」って後ろから声かけられて。

知佳：うそ。彼、帰ってきたの？

亜樹：ハルだったの。

知佳：なんだ。でも一瞬ドキッしちゃったわけだ。 (プライド)

(8)은 매주 옛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다리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부터 듣고, 화자는 「순간 깜짝 놀랐겠다」라는 귀결사항을 「わけだ」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Q사항은 앞의 P사항으로부터 화자가 추측하여 이끌어 낸 귀결사항으로, 화자는 P라는 사항을 자신의 경험 또는 어떤 논리적 이치에 따라 생각하면 당연히 Q가 된다는 것을 「わけだ」를 통해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わけだ」 표현이 회화장면에서 쓰일 때는 P와 Q의 관계가 논리적인 귀결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라도 문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9) 先方では、計算機の専門家で英語のよくできる人を寄こしてほしいと言ってきました。それで、田中君を選んだわけです。

(益岡 1992 : 133)

(9)예문은 앞에서의 예문들처럼 P와 Q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당연한 귀결관계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계산기 전문가가이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田中」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예문에서 「わけだ」가 가능하다는 것은, 「わけだ」에는 현재의 상황

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을 강조하는 용법¹³⁾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田中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대에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P라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Q의 사항을 납득하길 바라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산기 전문가이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田中”밖에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발화될 수 있는 것인 만큼, 회화장면에 한하여 쓰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わけだ」는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결과사항이 단순히 화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이치에 의한 당연한 귀결·결과사항임을 표명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필연적인 이유

(10) この社長には、副知事が就任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天下りです。私は04年4月から天下りを禁止しました。副知事に鉄道会社の社長になる器量があるかという、ないわけです。 (読売 2006.01.21)

(11) これからどうやって行けばいいのかわからなくなりました。それで私はいわば文学に転向したんです。連合赤軍事件が残した問題を克服するのは迂遠(うえん)なようだが、文学の力によるしかないだろうと思ったわけです。 (読売 2003.03.22)

(10') この社長には、副知事が就任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天下りです。私は04年4月から天下りを禁止しました。副知事に鉄道会社の社長になる器量があるか

13) 益岡隆志외(1992)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くろしお出版, p133.

いと、ないからです。

(11') これからどうやって行けばいいのかわからなくなりました。それで私はいわば文学に転向したんです。連合赤軍事件が齎した問題を克服するのは迂遠(うえん)なようだが、文学の力によるしかないだろうと思ったからです。

(10),(11)의 「わけだ」는 (10'),(11')처럼 이유나 원인을 제시하는 「からだ」 표현과 바꾸어 써도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Q는 앞의 P사항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わけだ」는 앞의 P라는 사항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사항 뒤에 접속하여 그에 대한 이유임을 표명하는 경우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12),(13)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유를 나타내는 사항 뒤에 「わけだ」가 접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부자연스럽다.

(12) A : 山田さんはなんでここに来たのですか。 (庵 2000 : 12)

B : * 田中さんに会いたかったわけです。

B : 田中さんに会いたかったからです。

(13) A : みんなどうしてあんなに勉強しているんですか。 (外国人 : p156)

B : * 明日テストがあるわけです。

B : 明日テストがあるからです。

(12B)와 (13B)는 「なんで」, 「どうして」라는 의문사항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문으로, 두 예문 모두 「わけだ」를 쓰면 문이 어색해지는 반면에, 「からだ」를 썼을 때는 문이 자연스럽다. 즉, 「わけだ」는 「からだ」처럼 어떤 사항에 대해 단순히 이유를 제시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わけだ」는 앞의 귀결·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에서 살펴보았듯, 「わけだ」 앞의 두 사항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인 필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10)과

(11)의 예문에서의 「わけだ」는 단순히 이유를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P와 Q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대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먼저 제시된 P라는 사항 뒤에 Q라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P라는 사실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상대에게 인식시키려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¹⁴⁾ 따라서 단순히 「なんで…ですか」, 「どうして…ですか」의 답변으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わけだ」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이다.

2.3. 납득

2.2.에서는 앞의 P사항에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에게 제시하는 용법을 살펴보았는데, 「わけだ」는 (14)와 같이 어떤 의문사항에 대한 이유나 사정을 파악했을 경우에도 나타난다.

(14) A: 窓があいていますよ。 B: え、どうりで寒かったわけだ。

(横田 2002 : 20)

(14)예문을 살펴보면, 「わけだ」 문에 「どうりで」¹⁵⁾라는 부사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わけだ」가 접속하고 있는 「추웠다」라는 사항은 화자가 P로부터 추측하고 있는 미정사항(未定事項)이 아니라, 이미 화자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이면서, 왜 그러한지 의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때, 상대로부터 그에 대한 이유가 되는 사항 P를 파악함으로써, 화자는 의문을 갖고 있던 Q사항을 당연한 것으로 납득하고 있다.

14) 寺村秀夫(1984), p278.

15) 「どうりで」는 어떤 사정을 알고 그에 대한 의심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14') A 窓があいている → 寒い

A' どうして寒いんだろう → 窓があいている → どうりで寒かった

(Q에 대한 의문) (P 파악) ↓ (Q 납득)

A의 흐름인식

즉, (14')와 같이 '왜 추운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P라는 사항을 알고, 화자의 뇌리 속에서 이 두 사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추웠던 것은 당연하다」라고 납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だ」에는 P라는 어떤 근거가 되는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관심의 대상 Q를 당연한 것으로 납득하였음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15) デバ地下にショップを構える和菓子屋のショーケースには代わりに桜餅が顔をそろえていた。もう桜餅？そうか、立春が過ぎれば、曆の上では春。桜餅の出番というわけだ。 16) (朝日 2006.02.13)

(16) 「う～ん、コレもう治療した跡だから何ともいえないけど、多分痛かったのは神経の下に菌が入って炎症してたからだと思いますよ。おそらく最初からそう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

えっ?? そうなの? 虫歯で痛いんじゃないのかな? ??

「うん。何でその治療しなかったのかなあ?」

そうか...だから痛みが基本的にとれなかったわけだ。 17)

16) 鈴木美加(2000), 「ワケダとイウワケダの意味機能の違いについて」, p128참조.

「わけだ」와 「이우わけ다」의 의미차이에 대해, 鈴木(2002)는 「이우わけ다」가 「わけだ」 표현에 비해 논리진개 흐름을 보다 객관화하여 진술하는 뉘앙스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큰 의미차이 없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경우도 많아,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예문선정을 하였다.

(15)에서는 백화점 일본과자 진열대에 놓여있는 「桜餅」를 발견하고 벌써 「桜餅인가?」 하고 의심을 갖는다. 이때, 화자의 머릿속에 「입춘이 지나면 달력상으로는 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순간 떠오른 P사항을 근거로 「桜餅가 나올 시기」라는 것을 납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6)에서는 치료한 후인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자, 의심스럽게 생각한 화자는 의사의 「아마 처음부터 신경 아래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었던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납득하고 있다.

한편, (17)예문은 Q사항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납득용법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는다.

(17) (息子が水割りを飲むのを見て)

「オレンジジュース大好きだったのが、水割りを飲むようになるんだもの、お母さんし
わがふえるわけだわね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永谷 2002 : 576)

(17)의 「엄마 주름이 늘고 있다」라는 Q사항은 (14)~(16)처럼 “왜 Q일까?”하고 이전부터 화자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관심의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주름이 늘고 있다는 신체적인 변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P의 사항을 인식함으로써, 새롭게 그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는 Q를 떠올리고 이를 당연한 것,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납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だ」는 반드시 이전부터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Q사항을 납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P라는 사항을 통해 Q를 재인식하여 납득하는 경우에도 쓰인다고 할 수 있겠다.

17) MSN웹 검색 (<http://plaza.rakuten.co.jp/atelierritz/diary/200601270000/>)

2.4. 환언

「わけだ」 문은 다음의 (18),(19)처럼 사항간의 관계가 인과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8) やっとの思いで禁煙をしたのはいいが、体重が増えてしまって困った、との悩みを持つ人は多い。一難去ってまた一難という訳だ。 (朝日 2006.02.11)

(19) もうひとつ、禁煙後に体重が増える人でも、1年を過ぎて増え続けることは非常に少ないという。最初の1年間は勝負というわけだ。 (朝日 2006.02.11)

(18') やっとの思いで禁煙をしたのはいいが、体重が増えてしまって困った、との悩みを持つ人は多い。(つまり) 一難去ってまた一難という訳だ。

(19') もうひとつ、禁煙後に体重が増える人でも、1年を過ぎて増え続けることは非常に少ないという。(言い換えると)最初の1年間は勝負というわけだ。

(18),(19)예문은 (18'),(19')처럼 「つまり」, 「言い換えると」와 같은 접속표현을 첨가하여도 문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Q사항은 P의 내용을 환언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에서는 「겨우 결심해서 담배를 끊은 것은 좋지만, 체중이 늘어버려서 고민이다」라는 P사항을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으로 바꿔 말하고 있는 것이고, (19)에서는 「담배를 끊은 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이라도 1년 넘도록 계속 느끼는 경우는 매우 적다」라는 P사항을 「첫 1년간이 중요하다」라고 관점만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わけだ」는 앞의 P라는 사항을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면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해도 좋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¹⁸⁾

18) 劉向東(1996), p55.

이는 (20)과 같이 P라는 사항을 상대방부터 듣고, 이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여 이해하는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20) 「あいつ、まだ、出席の返事をしないよ。」

「そうか、あんまり出たくないわけだ。」

(野田 2002 : 251)

(20)의 P에 해당하는 사항은 화자가 상대방부터 처음 인식한 사항으로서, “P=Q”라는 의미관계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여 이를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 화자의 인식 속에서 “P=Q”라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아직 출석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P사항을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Q의 의미와 마찬가지로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Q사항의 진실은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화자의 머릿속에는 P사항과 Q사항 사이에 어떤 당연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관련성을 「わけだ」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わけだ」 표현은 (21)처럼 앞의 사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는 경우에도 쓰이고 있다.

(21) また、犯行に至る行動を分析すると、事件への最初の引き金は「仕事上のストレスがたまった」ことだったりするという。ストレスの処理に困って盛り場に1人で出かけた揚げ句、事件を引き起こすというわけだ。 (朝日 2005.12.15)

(21)은 범행에 이르게 된 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는 문으로서,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못해 고민하다가 결국 변화가로 혼자 나가서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Q사항은 「사건을 일으키는

시발적인 요인은 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라는 P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わけだ」에는 앞의 P라는 사항만으로는 상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충하여 바꿔 말하는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21')처럼 P와 Q사항 사이에 「具体的に言うと」, 「というのは」 등의 표현을 부가하면 의미가 더 자연스러워진다.

(21') また、犯行に至る行動を分析すると、事件への最初の引き金は「仕事上のストレスがたまった」ことだったりするという。(具体的に言うと)ストレスの処理に困って盛り場に1人で出かけた揚げ句、事件を引き起こすというわけだ。

이러한 「わけだ」 표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난다.

(22) 商標を登録すると自社は商標権者になるわけですから、権利者の立場として、外部に対しその商標の使用についてのライセンス契約をすることもできます。例えば、関連会社やフランチャイズの加盟店に商標の使用を許諾し、自社の有利な立場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商標権自体を他社に譲渡することもできます。このように商標を登録しておけば、自社の商標を営業戦略の一つとして有効活用できるわけです。¹⁹⁾

(23) 「含まれている鉄分が空気に触れた途端に酸化して赤くなるのです。」
要するにさびるというわけだ。²⁰⁾

(22),(23)은 「わけ다」 앞의 P와 Q사항이 「このように」, 「要するに」 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Q는 앞의 P내용을 짧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わけだ」 에는 앞의 내용의 중점적

19) 読売新聞 웹 검색 (<http://www.furutani.co.jp/kiso/shouhyou1.html>)

20) 読売新聞 (http://kyushu.yomiuri.co.jp/entame/onsen/kikou/42/ki_42_00yuno.htm)

인 부분을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요약하여 바꿔 말하는 기능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리·요약의 용법을 갖는 「わけだ」는 주로 인터뷰 장면 등에서 상대의 발언내용을 화자 나름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해석이 상대의 의도와 맞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²¹⁾

(24) A : そんなふうに、さまざまな人に話しているうちに、いつの間にか遠心力がついて会社設立に至ったのです。(생략)それが、まったくうまくいきませんでした。携帯電話事業者に行っておフィシャルサイトにしてもらうよう交渉したのですが、私の会社がベンチャーでまったく実績がないこともあり、契約してもらえなかったのです。今から考えれば、私の見通しが甘かったと思います。

B : 設立早々、大ピンチを迎えたわけですね。²²⁾

이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だ」는 앞의 사항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귀결 관계를 제시하는 경우 외에도, 앞의 사항이 의미하는 바를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환언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객관성 암시

(25) 「新聞社でこういう言い争いがくり広げられていることにびっくりした。確かに、新聞記事も人が書いているわけだし、それだけ多くの考えがある。その意見をぶつけ合うのは、視野を広げるとい意味でとてもよいことだと思う」²³⁾

(25)는 지금까지 살펴본 「わけだ」의 다른 용법들과는 달리, Q사항과 특

21) 吉川武時(2003), p132.

22) 구글 웹 검색 (<http://www.unisys.co.jp/club/dream/200405/index.html>)

23) 朝日新聞 (<http://www.asahi.com/shimbun/honsya/j/nie.html>)

별히 호응하고 있는 P사항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確かに」라는 표현과 함께 「わけだ」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Q사항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 (25)에서의 「わけだ」문을 살펴보면, 「신문기사도 사람이 쓰고 있다」는 Q사항은 굳이 어떤 근거나 전제가 없어도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특별히 Q에 대한 전제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도리나 기정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わけだ」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상식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²⁴⁾ 따라서 비록 문에는 P라는 근거사항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화자의 의식 속에는 객관적으로 Q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わけだ」용법은 무엇보다 일일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미 정해진 사실로서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므로, 寺村(1984)는 이를 잘못 쓰게 되면 강요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⁵⁾

객관성을 암시하는 「わけだ」는 일반적으로 문말보다는 문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6) なぜ、海藻がヘルシー食材として評価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か、本多氏は次のように解説しています。

「海藻は、陸上のミネラルが全部溶けている海中で育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ミネラルが豊富です。ミネラル自体はエネルギー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ごく微量でほかの栄養素のはたらきを円滑にするという役目をはたしています。ミネラルは、人間のからだの円滑油、貴重なサポート役といえるでしょう。」

(朝日 2005.09.30)

24) 劉向東(1996), p57.

25) 寺村秀夫(1984), p283.

(27) 夫婦といえどもそれぞれの価値観が違うわけですから、やはり話し合う必要があります。なぜ、あなた自身は子どもをほしいと思うのか、これからどのような家庭を築いていきたいのか、自分自身はどんな人生を送りたいのか、パートナーはどのような存在であってほしいのか等々、気持ちを整理したうえで、感情的にならずに夫婦で話し合ってみてください。 (誌元 2005.10.04)

(26),(27)의 Q사항은 모두 특별한 전제나 근거사항 없이 「Qわけだ」의 형태로 쓰여, 이미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항, 기정사항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Q사항은 화자가 최종적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중심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나 전제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26)의 「해조는 육상의 미네랄이 전부 녹아있는 바다 속에서 자란다」는 Q사항은 해조류가 인체의 원활유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사항이 되고 있고, (27)의 「부부라 해도 각기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Q사항 또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객관성을 암시하는 「わけだ」는 다른 「わけだ」의 용법과는 달리, 주로 화자가 진술하고자 하는 중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에 대한 전제나 근거로 쓰이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わけだ」라는 형태로 문말에 오는 경우보다, 「わけだから」, 「わけだが」와 같은 형태로 문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III. 의문형식 「わけですか」의 용법

「わけだ」의 의문형식 「わけですか」는 문맥에 따라 「というわけですか」, 「ってわけですか」로도 표현되고, 친한 상대에게 있어서는 「わけ?」, 「というわけ?」, 「ってわけ?」의 형태²⁶⁾로도 나타나는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わけだ」의 의문형식이 갖는 용법적인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3.1. 판단확인

(28) a 波がずいぶん荒いですね。今日は船が出せないわけですか。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吉川2003 : 123)

b 波がずいぶん荒いですね。今日は船が出せないですか。

(29) a 波がずいぶん荒いですね。台風が近づいているわけですか。

(吉川2003 : 123)

b 波がずいぶん荒いですね。台風が近づいていますか。

(28a),(29a)와 (28b),(29b)는 공통적으로 화자가 어떤 의문을 갖고 그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라 할 수 있지만, 「わけですか」의 의문문과 「(です・ます)か」의 의문문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です・ます)か」의 (28b),(29b)는 오늘은 배가 나갈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26) 「わけですか」 앞에 「という」가 접속한 「というわけですか」라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상대의 발화내용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는 회화 장면에서 쓰일 경우, 「という」를 「って」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에 대한 그 진위여부만을 묻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의문사항에 대한 긍부(肯否)만을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わけですか」의 형태로 묻고 있는 (28a),(29a)는 단순히 Q사항의 긍부를 묻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P로부터 Q라는 결론을 내도 괜찮은 것인지 상대로 하여금 그 진실을 확인하는 의문형식이라 할 수 있다. 즉, (28a)는 「파도가 굉장히 세다」라는 사항으로부터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오늘은 배가 나갈 수 없다」라는 귀결을 이끌어 내도 괜찮은 것인지를 상대에게 확인 하고 있는 것이고, (29a)는 “태풍이 다가오면 파도가 세다”라는 사항의 논리적인 흐름을 토대로, P사항의 근거로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지를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8'),(29')처럼 「波がずいぶん荒い」라는 P사항으로부터의 추론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です・ます)か」 표현은 가능한 반면, 「わけですか」 표현은 쓰기 어렵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8') a ? 今日は船が出せないわけですか。

b 今日は船が出せないですか。

(29') a ? 台風が近づいているわけですか。

b 台風が近づいていますか。

이러한 「わけですか」 표현은 다음의 (30),(31)처럼 상대의 말이나 상황의 의미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30) 男：見てください、この写真。カナダ北部から北極圏にかけて多く見られる家ですよ。

女：知ってます。これ、「イグルー」って言うんでしょう。でも、一年中雪と氷に閉ざされたところで雪の家なんて、寒くないんですかね。

男：摩訶不思議でしょう。ところが、雪というのは熱を伝えにくいものなんですよ。

女：へえ、外の冷たい風が入らない、断熱性の高い材料ってわけですか。
(EBS 6 : p58)

(31) 「ゼロエミッション」という言葉を今ここで初めて聞いたという方はちょっと手を挙げて
みてください。

——大体の方はご承知なわけですか。 27)

(30)은 이글루가 눈으로 만든 집인데도 불구하고 춥지 않은 이유에 대해, 「눈이라는 것은 열을 전달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상대의 설명을 듣고, 화자는 그 의미를 「밖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단열성 높은 재료」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ってわけですか」를 사용함으로써,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1)에서는 「ゼロエミッション」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여, 손을 든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거라 이해해도 되겠죠?」라고 확인하는 문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わけですか」는 단순히 어떤 사항에 대한 긍부를 묻는 표현이 아니라, P라는 사항을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Q라 판단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문법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항 간의 어떤 논리적인 필연성을 진술하는 「わけだ」가 그대로 의문형식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3.2. 의문

(32) お膳(ぜん)が出たが例年と違う。平皿には雁(がん)、ゴボウ、ニンジン、
里イモなどが並ぶが、今年は雁でなく塩ブリだ。大庄屋たち、黙ってはいない。
「これはどういうわけですか」と賄い方に申し入れる。 (読売 2004.07.09)

27) 朝日新聞 웹 검색 (<http://www1k.mesh.ne.jp/toshikei/122.html>)

3.1.에서 살펴본 「わけですか」의 용법은 P사항을 근거로 Q를 판단·확인하는 것으로서 P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자가 전혀 의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렇지만, (32)의 예문을 살펴보면, 화자는 P라는 사항에 대해 어떤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때와는 다른 밥상음식을 보고 그에 대한 의문을 갖고, 「わけですか」 표현을 씀으로써 왜 그러한지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33a),(33b)를 살펴보면 「わけですか」 표현을 단순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의미를 갖는 의문형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3) a ?? どうして、あんなに喜んだわけですか。 (野田 2002 : 256)

b どうして、あんなに喜んだんですか。 28)

위의 (33a),(33b)예문은 왜 그렇게 상대가 기뻐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그 이유를 묻고 있는 문이라 볼 수 있는데, 「のですか」라는 형태로는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데 반해, 「わけですか」의 형태로는 어색한 문장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Q사항의 이유를 묻고 있는 「のですか」 표현과는 달리, 「わけですか」 표현은 Q사항 이면에 어떤 필연적인 근거라도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는 화자의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33a)처럼 상대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에 의문을 갖고 자신보다윗 사람에게 「わけですか」라는 형태로 묻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라도 있었는지 추궁하는 뉘앙스가 나타나, 상대에 대한 정중함과 모순되기 때문에 어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의 예문을 만약

28) 상대에 관해 전혀 백지상태에서 묻는 경우에는 「(です・ます)か」의 의문형식을 쓰지만, 어떤 질문의 전제가 되는 상태나 상황이 있고, 그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경우에는 「のですか」의 의문형식을 사용한다. (33b)는 (33a)의 「わけですか」를 「のですか」로 바꾸어 쓴 예문으로, 여기에서는 상대가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のですか」의 의문형식을 사용하였다.

친구나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わけ?」의 형태로 쓰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33') どうして、あんなに喜んだわけ?

이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ですか」 표현은 어떤 의문사항에 대한 깊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

3.3. 비난

다음의 (34),(35)의 예문과 같은 경우는 P라는 사항에 대해 어떤 의문을 갖고 있긴 하지만, 3.2.의 의문을 나타내는 용법과는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4) 新二 : よっ! (と言いながら、瀬名君の家に入る)

みなみ: "よっ"て、あんなどの面さげてここに来れるわけ? 瀬名君の涼子ちゃん

横取りしといて。

(Long Vacation)

(35) 女 : 石井くん、帽子が反対だよ。ほら、タグが見えちゃってる。

男 : これ、わざとなんだ。帽子を逆にかぶると、大逆転できるって知ってた?(생략) 朝飯はカツ丼をモリモリ食べてきたし、お守りも身につけているし、今度の試験には絶対勝つぞ!

女 : 本気でそんな非科学的事物信じてるわけ? そんな暇があったらちゃんと勉強

しなさいよ。

(EBS 3 : p56)

우선 (34)는 瀬名와 涼子の 관계를 가운데서 훼방을 놓은 新二가 아무

렇지도 않게 瀬名집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대화로, 화자는 「わけ?」를 사용함으로써, 무슨 냇으로 이곳에 올 수 있느냐며 新二의 행동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35)에서는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해 미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자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믿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상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하며,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즉, (34),(35)의 예문은 P사항에 대해 어떤 의문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상대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는 화자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 그리고 사고방식 등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이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쓸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은 자신보다 윗사람에게는 쓰기 힘들기 때문에 「わけですか?」와 같은 정중표현이 아닌, 「わけ?」로 쓰이는 것이다.

IV. 부정형식 「わけ…ない」의 용법

「わけだ」는 다른 표현들과는 달리 「わけではない」, 「わけにはいかない」, 「わけがない」라는 세 가지 부정형식을 갖는다. 이들은 각각 형태를 달리 하는 만큼, 문 안에서의 의미와 용법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각의 용법적인 특징을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4.1. 「わけではない」의 용법

「わけではない」는 문맥에 따라 「わけじゃない」, 「わけでもない」 등과 같은 형태로도 쓰이고, 정중한 형태로는 「わけではありません」과 같은 형태를 갖으면서, 일반적으로 바로 앞에 접속한 Q사항 전체를 부정하며 나타난다. 그러나 「わけではない」는 문 안에 「すべて」, 「よく」, 「たくさん」 등과 같이 정도나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거나, 바로 앞에 접속한 술어가 부정형식인 경우에는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わけではない」의 용법을 기본적 용법과 파생적 용법으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4.1.1. 「わけではない」의 기본적 용법

(36) 国民所得が大きくなっても、生活の豊かさが増すわけではない。

(吉川 2003 : 137)

(37) トマトを食べないからといって、嫌いなわけではない。

(블랙박스 : p19)

(36)과 (37)의 예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문장사이에 「ても」, 「からと
 いて」와 같은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わけではない」는 앞의 Q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두 사항간의 의미관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Q는 P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고, P와 Q사이에는 어떤 논리적인 이치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이
 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ではない」는 단순히 앞의 Q라는 사항을 부정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P와 Q사항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겠다. 이는

(38) A : 田中さんは先生ですか。

B : a いいえ、田中さんは先生ではありません。 (TOP : p31)

b * いいえ、田中さんは先生のわけではありません。

(38Ba)와 같은 단순부정문을, (38Bb)처럼 논리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わけ
 ではない」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문장이 어색해 진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예문들을 통해 「わけではない」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9) A : 最近社内から日帰り出張が多すぎるとの不満が多数あって、ついにテレビ
 会議システムの導入を検討するから調べて欲しいと上司から言われたんです。そ
 れで調べていたら、Web会議システムの話も出てきて、テレビ会議システムと
 何が違うのかと思い、助言をいただきたくメールをお送りしたんですよ。

B : 導入費用に関しては、テレビ会議システムは相当に高価なもの、というイ
 メージがありましたが最近では低価格化が図られ、Web会議システムと比較
 してもそれほど大きな差がないようです。

A : そうしたら後は予定通りテレビ会議システムに絞って調べればよいというわけ
 ですか？

B : そういうわけではないのですよ。御社の会議にテレビ会議システムがフィットする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のです。29)

(39)는 TV회의 시스템 도입에 대해 알아보던 중, Web회의 시스템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둘의 차이를 상담하고 있는 대화내용이다. 여기에서 「わけではない」는 화자가 말한 P라는 사항을 상대가 Q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P와 Q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40) そんなある日、台所に立って洗い物をしていると大五郎(後足は付け根から全く無く、前足は肘から少しついている奇形の猿)がやってくる。心配がするのです。けれどもどうもいつもと動きが違います。あらっ、どうしたのだろうと振り返ってみると、大五郎が這っている姿が目に入ったのです。(중략) 誰が教えたわけではない、大五郎は自分で這うことを覚え、私のところへ来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EBS 10 : p78)

반면, (40)은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원숭이 大五郎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에서 Q사항은 (39)예문처럼 상대방부터 직접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 이는 작자 자신이 P라는 사항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자들의 판단을 미리 예상하고, 그 판단사항을 부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팔과 다리가 없는 원숭이가 혼자서 기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를 읽은 독자는 이에 대한 당연한 이유로서 「누가 교육을 시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작자가 예상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わけではない」 표현은 (39)처럼 상대방부터 직접 P를 근거로 Q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40)처럼 자신이 “P라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Q라 판단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29) 구글 웹 검색 (<http://www.sw.nec.co.jp/products/itpoint3/02/index.html>)

그 Q사항을 부정하는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寺村(1984)는 실제 이러한 「わけではない」 표현이 자주 쓰이는 경우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라고 설명한다.³⁰⁾

「わけではない」는 다음의 (41)예문처럼, P와 Q사항의 위치가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41) 「話をそらすわけじゃないけど、夕飯を食べる気はないかな。」

(野田 1992 : 56)

이는 화자가 갑자기 「저녁 먹을 생각은 없는 건가」라고 말을 꺼내면, 상대는 「말을 돌리려는 것이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여, 앞서 그러한 판단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わけではない」 표현은 (42)예문처럼 Q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에게 설명하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わけでもないのに…」와 같은 형태로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42) ネギと一緒に食べていると途中で気持ち悪くなる。別にネギが嫌いなわけでもないのに何でだろう。³¹⁾

(42)예문은 파와 같이 음식을 먹고 있으면 갑자기 속이 이상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문으로, 문장이 「何でだろう」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상대를 대상으로 발화된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2)예문의 「わけでもない」는 상대가 혹시 P로부터 판단할지 모르

30) 寺村秀夫(1984), p287.

31) 朝日新聞 웹 검색 (<http://www10.plala.or.jp/nokaji/motomatiya.html>)

는 Q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 스스로가 P로부터 가정한 Q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왜 P일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P가 성립할 수 있는 필연적인 이유사항 Q를 스스로 가정하고, 이 Q는 성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わけではない」 표현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P사항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Q와 같은 필연적인 이유가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Q가 성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P가 일어난 것은 의외이다”라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わけだ」의 부정표현 「わけではない」는 어떤 전제사항으로부터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당연히 Q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Q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할 때 쓰이는 부정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단, 어떤 사태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 Q사항을 화자 스스로 가정하여 「Qわけでもないのに」라는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그 사태에 대한 의외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2. 「わけではない」의 파생적 용법

4.1.1.에서 살펴본 「わけではない」의 용법은 Q사항 전체를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P와 Q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한다. 그런데 다음의 (43)의 예문에서는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43) 私がかかわる子供たちは、汚されているときに、私と出会っています。そして、私とともに生き、新しい人生を求め巣立っていきます。 すべての子が昼の世界に戻り、明るい明日を手にするわけはありませんが、それでもこの13年間、多くの子供たちが私の元を巣立ち、昼の世界へと旅立っていきました。

(EBS 6 : p40)

(43)은 4.1.1.에서 살펴본 다른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わけではない」가 「모든 아이들이 낮의 세계로 돌아가서 밝은 미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라는 Q사항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내용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왜냐하면, Q사항 뒤에 「많은 아이들이 나의 꿈을 떠나, 낮의 세계로 자립해 나갔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3)예문의 「わけではない」는 Q사항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すべて」의 일부만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작자는 「나와 함께 살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자립합니다」라는 P사항을 알고, 독자가 혹 “모두가 그렇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4) 忙しいといっても、みんなが忙しいわけではない。

(= 一部の人はひまだ) (吉川 2003 : 139)

(45) 棚はビデオで埋まっているが、全部を見たわけではない。

(= 一部のビデオは見えていない)

(吉川 2003 : 139)

이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ではない」는 Q사항 안에 「すべて」, 「みんな」, 「全部」 등과 같은 부사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Q사항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부정하여 이른바 부분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しょっちゅう」, 「たくさん」 과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46) 「テニス、お上手ですね。よくなさるんですか。」

「いや、そんなにしょっちゅうするわけじゃありません。」

(= 時々はする)

(吉川 2003 : 139)

(47) 「たくさん飲んだんですか。」

「いや、そんなにたくさん飲んだわけじゃない。」

(= 少し飲んだ)

(吉川 2003 : 139)

(46)에서는 테니스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테니스를 자주 친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대에게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가끔은 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47)에서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대에게 「그렇게 많이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조금은 마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わけではない」를 씌으로써 「しょっちゅう」나 「たくさん」의 정도의 높음을 부정하고, 그것보다 낮은 정도는 인정하는 이른바 정도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이 「わけではない」앞에 접속하는 술어가 부정형식인 경우에는 이중부정의 형태를 갖게 되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8) 新卒者に占める無業者の割合は、1990年には5・6%だったのが、99年以降は約20%と高い割合で推移している。景気の低迷により雇用が縮小しているのが最大の原因だ。とはいえ、一部の中小企業では人手不足を訴える声もあり、仕事がないわけではない。限られたチャンスとはいえ、派遣から正社員になれる仕組みもある。 (読売 2006.02.02)

(48)은 경기침체로 고용이 축소되면서 그 해 대학졸업자들이 차지하는 무직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P사항으로부터, 독자가 “일이 없다”는

잘못된 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 작자가 예상하고, 「わけではない」를 써서 그 Q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문이다. 그런데 (48)에서의 Q사항은 비록 “일이 있다”라는 긍정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앞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소리도 있고」에서의 「일부」라는 말과 「わけではない」문 다음에 「한정된 기회이긴 하지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은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ないわけではない」라는 이중부정의 형태로 인해, “긍정의 의미이긴 하지만 부정의 의미에 가깝다”는 식으로 그 긍정의 의미가 조금 소극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 (48) a 仕事がないわけではない。 (=あるけど、ないに近い)
 b 仕事があるわけではない。 (=仕事がない)

이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ではない」는 기본적으로는 P라는 사항으로부터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Q사항을 부정하여 앞의 P와 Q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한다고 볼 수 있지만, Q사항 안에 만약 「すべて」, 「しょっちゅう」, 「たくさん」 등과 같이 정도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오면, 부분부정, 정도부정의 의미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わけではない」가 「…ないわけではない」와 같이 이중부정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 긍정의 의미가 조금 소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わけにはいかない」의 용법

「わけにはいかない」는 「わけにもいかない」, 「わけにはいくまい」, 그리고 정중

한 형태로는 「わけにはいけません」, 「わけにはまいりません」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데, 4.1.에서 살펴본 「わけではない」 표현과는 형태적으로도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성질도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9) A :今日は身体がだるい。熱があるらしい。

B :じゃ、休めばいいじゃないか。

A : いや、今日は判決の日だから、休むわけにはいかない。

(寺村 1984 : 289)

(50) 今日は試験だから、風邪でも休むわけにはいかない。

(吉川 2003 : 140)

(49),(50)에서 공통적으로 P사항은 화자가 Q사항을 하는데 있어 어떤 제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에서의 「오늘은 판결의 날」이라는 사항은, 통념상 그 어떤 날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인만큼, 아무리 몸이 나른하고 열이 있다 하더라도 화자로 하여금 쉽게 「쉬다」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50)에서의 「오늘은 시험」이라는 사항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항간의 의미관계로 보아, 「わけにはいかない」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わけではない」 표현처럼 “Q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Q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P라는 것을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Q는 성립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므로 화자는 Q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わけにはいかない」 표현 앞에 접속하는 Q사항은 항상 발화시점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사항이 온다는 특징을 갖는다.

(50') a 昨日は試験だったから、風邪でも休む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

b * 昨日は試験だったから、風邪でも休んだわけにはいかない。

(50'a)예문은 「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 라는 「わけにはいかない」 의 과거형식을 씌으로써 과거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지만, Q사항은 발화당시 실현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문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50'b)는 「わけにはいかない」 앞에 Q사항이 「休んだ」 라는 과거형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미 실현된 사항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문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이러한 「わけにはいかない」 표현은 다음의 (53)예문처럼 P사항을 상대에게 명시하여 Q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54)예문처럼 구체적으로 P를 명시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51) 同僚 2 : 幌子、まだいたの？

同僚 3 : 遠山さん待ってんでしょ？

幌子 : 貞子の衣裳、直さなきゃなんないから。

同僚 3 : そんなの、貞子にやらせりゃいいじゃん。一番新米なんだから。

幌子 : 役付きの人にやら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よ。

(ジャーナル 5 : p77)

(52) 仕事で疲れた心を和らげてくれるペット。働く女性の中にも、イヌやネコなどを飼っている人は多い。しかし一度飼い始めると飼い主の都合で簡単に手放すわけにはいかない。仕事で家を空けるときの対策も必要になってくる。

(読売 2005.07.28)

(51)예문은 늦게까지 남아서 의상을 고치고 있는 화자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런 일은 신참인 貞子에게 시키라고 하는 동료들에게 화자는 「시키고 싶어도 배역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시킬 수 없다」 는 것을 「わけには

いかない」 표현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문이다. 즉, 화자는 동료들에게 그러한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키고 싶어도 「신참인 貞子は 배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P사항을 어떤 상식이나 통념을 기준으로 생각한 결과, 어쩔 수 없이 「貞子에게 이 일을 시키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임을 이해시키려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52)예문은 「일단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면 그냥 집에 내버려두고 활동하고 싶어도 주인 마음대로 간단히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わけにはいかない」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P사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52)의 Q사항은 (51)의 Q사항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애완동물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것」이라는 제약 때문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자는 굳이 P를 밝히지 않고도 「Qわけにはいかない」만으로, “Q를 제약하는 P사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다음과 같이 「わけにはいかない」 앞의 Q사항이 부정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중부정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53) 高校2年の長男のことで相談があります。(생략)朝起きないと昼まで眠り続けています。甘やかしているとは思いつつ、出席日数が足り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どうしても私が起きさ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す。(読売 2005.08.05)

(53)은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아침에 깨워주지 않으면 점심때까지 계속 잠을 자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학교출석일수가 모자라게 된다고 생

각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깨워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わけにはいかない」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일이 깨워주며 응석받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깨워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わけにはいかない」라는 표현은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이를 필연적으로 제약하는 것들이 있어 화자의 의지대로는 되기 어렵다는 것을 표명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3. 「わけがない」의 용법

「わけがない」 표현은 「わけがありません」, 「わけもない」, 「わけない」 등과 같은 형태로도 쓰이는데, 이에 대한 용법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예문들의 사항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4) 夏なら、雪なんか降るわけがない。 (吉川 2003 : 142)

(55) 死んだ人が生き返ってくるわけがない。 (문형썸이야 : p802)

위의 (54),(55)의 예문을 살펴보면, 「わけがない」가 접속하고 있는 Q사항은 앞의 전제가 되고 있는 P사항을 기준으로 어떤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생각했을 때,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4)의 경우, 「눈이 내린다」라는 사항은 계절상 겨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식적으로 「여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고, (55)에서의 「살아서 돌아오다」라는 사항 또한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P와 Q사항 간의 관계로 보아, 「わけがない」라는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わけではない」나 「わけにはいかない」표현과는 또 구별되어, P와 Q는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 P라는 사항으로부터 Q는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문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6) (真冬、雪の積もっている山里で)

祖父：「そこらでタクシーつかまえたら、15分で病院だ。」

母：「タクシーはダメ!!、つかまるわけないわよ。」

(LoveLetter)

(57) 彼の親友が、彼の悪口を言うわけがない。だれかの間違いだろう。

(블랙박스 : p49)

(56)은 한겨울 눈이 많이 쌓인 산골마을에서의 대화내용으로, 화자는 이런 겨울에 택시가 산골마을까지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고, 당연히 「택시가 잡히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わけがない」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7)에서도 상식적으로 친한 친구를 험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화자는 이 두 사항관계를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わけがない」라는 표현을 써서 그의 친한 친구가 험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わけがない」 표현은 (58)과 같이 Q사항이 과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58) 当時、田中さんはA社の営業部に勤めていたのだから、同じ部にいた山田さんを知らなかったわけがない。

(吉川 2003 : 142)

(54)~(57)에서 살펴본 「현재형+わけがない」 표현은 Q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현재의 발화시점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58)과 같이 「과거형+わけがない」는 시점을 그때 당시로 옮겨 논리를 전개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즉, 「그때 당시에 田中が 山田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わけがない」 표현은 「わけがなかった」, 「わけもなかった」라는 식으로 과거의 형태로 쓰여, Q라는 사항이 불가능했었던 과거 상황을 회고하는 뉘앙스를 나타내기도 한다. 32)

(59) 中學生の頃には、親の気持など理解できるわけもなかった。

(吉川 2003 : 142)

이러한 것으로 보아, 「わけがない」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Q라는 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화자가 확신하여 주장하는 경우에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즉, Q를 성립시키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실질명사 「わけ」의 “이치·도리” 등의 의미가 그대로 표출되어, “도리가 없다”, “이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吉川武時(2003), p142.

V. 결 론

지금까지 「わけだ」 표현이 갖는 여러 가지 용법적인 특징에 대해 자세
히 고찰해보았다. 이를 차례대로 정리해보면,

- 1) 긍정형식의 「わけだ」는 「わけ」라는 형식명사에 「だ」가 결합한 것으
로, 실질명사 「わけ」의 자립적인 의미는 표출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わけだ」가 접속한 사항은 어떤 전제사항으로부터 논리적인 이치를
거쳐 출현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わけだ」의 용법은 크게 귀결·결과, 필연적인 이유, 납득, 환언, 객관성
암시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나타났다.

- ① 「わけだ」는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결과사항이 단순히 화자 주관적인 판
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이치에 의한 당연한 귀결·결과사항임
을 표명하는 경우에 쓰이는 문말표현이다. 일반적으로 “Q는 P로부터의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그대로 표출시켜,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경우에 자주 쓰이는데, 이때의 귀결사항은
화자 자신의 경험이나 이치에 따라 추측·판단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단, 회화장면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귀
결관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상대
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임을 강조하는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
- ② 「わけだ」는 P라는 사실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상대에게 인식
시키기 위해, P라는 사항 뒤에 Q라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용법이 있다.
- ③ 「わけだ」는 P라는 어떤 근거가 되는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의문이나
의심을 갖고 있던 Q사항을 납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

이때의 Q사항은 P로 인해 재인식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④ 「わけだ」는 앞의 P사항의 의미를 Q라는 다른 관점으로 제시하여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거나, 화자 스스로 P로부터 Q라 해석·판단하였음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 이때의 Q사항은 P와 같은 의미관계로 나타나는 경우, 부연관계로 나타나는 경우, 정리·요약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⑤ 「わけだ」는 앞에 아무런 전제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Q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말하는 용법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わけだから」, 「わけだが」의 형태로, 화자가 진술하려는 내용의 전제나 근거가 되고 있다.

2) 의문형식의 「わけですか」의 용법은 크게 판단확인, 의문, 비난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나타났다.

① 「わけですか」는 어떤 사항을 전제로 하여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추측·판단되는 사항을 확인하여 묻는 판단확인 용법이 있다. 이 경우의 「わけですか」는 전제사항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결과나 이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상대의 발언내용이나 상황의 의미를 확인하여 묻는 경우도 있었다.

② 「わけですか」는 어떤 사항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경우, 그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묻는 경우에 쓰인다.

③ 상대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わけ?」라는 형태로 비난의 뉘앙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3) 「わけだ」의 부정형식 「わけではない」, 「わけにはいかない」, 「わけがない」는 서로 각기 다른 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의미와 용법에 서도 차이가 있었다.

- ① 「わけではない」는 어떤 전제사항으로부터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당연히 Q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Q가 성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표명하는 경우에 쓰이는 부정표현이다. 단, 어떤 P라는 사태의 필연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 Q사항을 화자 스스로 가정하여 「Qわけでもないのに」라는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P에 대한 의외의 감정을 나타낸다. 또한, 「わけではない」는 앞에 「すべて」, 「しょっちゅう」와 같은 정도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오는 경우에는 부분부정, 정도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앞에 부정형식이 오는 경우에는 이중부정이 되어 전체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긴 하나, 부정의 의미에 가깝다는 소극적인 긍정을 나타낸다.
- ② 「わけにはいかない」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적인 면에서, 화자의 행동이나 의지가 뜻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부정표현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 ③ 「わけがない」는 어떤 상황이나 전제사항으로부터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생각하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임을 표명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는 실질명사 「わけ」의 “이치·도리”등의 의미가 그대로 표출되어, “도리가 없다”, “이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参 考 文 献

<예문출전>

- 이학의(2003), 『(日本語)문형짜이야』, 삼지사 (문형짜이야)
- 酒入郁子 외(2004), 『日本語を教える④ 外国人が日本語教師によくする
100の質問』, バベル・プレス. (外国人)
- 日本語ジャーナル (2003년 5월·2004년 8月号), 다락원.
(ジャーナル 5·8)
- EBS FM Radio 中級日本語會話 (2005년 3월·6월·10月号),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3·6·10)
- 三木寿々恵 외(2001), 『TOP JAPANESE 1』, 시사일본어사. (TOP)
- 松岡竜美·辻信代(1995), 『블랙박스400 일본어능력시험2급문법』, 시사일본어사.
(블랙박스)
- Long Vacation (1996년 フジテレビ 상영드라마) (Long Vacation)
- プライド (2004년 フジテレビ 상영드라마) (プライド)
- Love Letter (1995년 岩井俊二 監督 영화) (Love Letter)
- 朝日新聞 (朝日)
- 読売新聞 (読売)

<외국문헌>

<단행본>

- 寺村秀夫 (1984), 『日本語のシタクトと意味 第2巻』, くろしお出版.
- 吉川武時 (2003), 『形式名詞がこれで分かる』, ひつじ書房.
- 益岡隆志 (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 野田春美 (1997), 『「の(だ)」の機能』, くろしお出版.

- 角田三枝 (2004), 『日本語の節・文の接続と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 庵 攻雄 外 (2001), 『中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庵 攻雄 外 (2000),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野田春美 外 (2002),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田窪行則 (1992),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くろしお出版.
- 宮島達夫・仁田義雄 (1996),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 くろしお出版.
- 阪田雪子・倉持保南 (1982),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④』 文法II -助動詞を中心にして-, 国際交流基金.

<사전류>

日本語教育辞典 (1982), 日本語教育学会編, 大修館書店.

日本国語大辞典 (1980), 日本大辞典刊行会編, 小学館.



<논문>

松岡弘 (1987), 「「のだ」の文・「わけだ」の文に関する考察」 『言語文化』 (24号), 一橋大学語学研究室.

_____ (1993), 「再説—「のだ」の文・「わけだ」の文」 『言語文化』 (30号), 一橋大学語学研究室.

劉 向東 (1996), 「「わけだ」文に関する一考察」 『日本語教育』 (88号), 日本語教育学会.

永谷直子 (2002), 「「わけだ」と「のだ」に関する考察-情報の把握を示す場合-」, 日本語学論説資料, CD-ROM版. 論説資料保存会[編]. 論説資料保存会. 39号第2分冊増刊.

藤村知子 (2000), 「説明文における「ワケダ」の使用例とその機能」 『東京外国語大学留学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論集』 (26号).

鈴木美加 (2000), 「ワケダとトイワケダの意味機能の違いについて」 『東京外国語大学留学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論集』 (26号).

- 横田凉子(2001), 「文末表現「わけだ」の意味と用法」 『東京外国語大学留学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論集』 (27号).
- _____ (2002), 「文末表現「わけだ」の用法「はずだ」「ことになる」との比較」 論説資料保存会[編]. 論説資料保存会. 39号第2分冊増刊.
- 北川千里(1995), 「「わけ」という「わけ」」 『日本学会』 14-9, 明治書院.
- 岡部寛 (1994), 「説明のモダリティ「わけだ」「のだ」の用法とその意味の違い比較の観点から」 『日本学報』 (13号), 大阪大学大学院, 日本学研究室.
- 尹相実 (1995), 「日本語の判断モダリティ形式について-ノダ・ワケダ・ハズダを中心に」, 『国語国文研究』 (北海道大学) .
- _____ (1999), 「現代日本語判断系モダリティの記述的研究: 文末形式分析を通じて」, 北海道大学博士学位論文.
- 野田春美(1992), 「単純命題否定と推論命題否定」 - 「のではない」と「わけではない」 -, 梅花短国語国文.
- 奥田靖雄(1992), 「説明(その2) - わけだ」 『ことばの科学 5』, 言語学研究会編, むぎ書房.
- 金玉任 (1996), 「日本語における論理性表示のモダリティ」, 筑波大学博士学位論文.
- 工藤真由美(1997), 「否定文とディスコース - 「~ノデハナイ」と「~ワケデハナイ」 『ことばの科学 8』, 言語学研究会編, むぎ書房.

< 한국문헌 >

< 논문 >

- 배은성 (1994), 「「わけ」의 叙法성과 出現 条件」, 한남대학원 석사논문.
- 박정근 (2001), 「日本語의 모달리티에 对한 一考察 - 推論과 説明表現을 中心으로-」, 한국외국어대대학원 박사논문.

<Abstract>

- A Consideration on the usage of '*wakeda*' -

Kang So-hee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Seung-han

'*wakeda*' is one of the expression that is usually used at the end of a sentence of colloquial style and literary style in Japanese. However,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and use the usage because it is interpreted in many ways like, 「것이다」, 「셈이다」, 「할만하다」, 「당연하다」, in Korean by the context. Also, '*wakeda*' has a different permission according to colloquial style and literary style though it is the same sentence, so it is very difficult domain for foreign language learner to understand the usage of '*wakeda*' fully. This paper is designed for studying in what occasion '*wakedaa*' is used or for what intention '*wakeda*' is used pacifically, by considering the nearing and the usage of an affirmative form, an interrogative form and a negative form.

First, the affirmative '*wakeda*' which is connecting 'da' with a formal noun called 'wake' does not express on independent meaning of a practical noun 'wake' But it is the advent through a logical reason from a certain premise. The '*wakeda*' usage is represented as a result usage, an inevitable reason usage, an understanding usage, the usage which is changing from the previous meaning to the understandable point of view and the usage which is suggesting an established fact according to the relevant facts with the sentence.

Second, '*wakedesuka*' which is an interrogative form of '*wakeda*' i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induced in the case of asking the matter that is guessed and judged by a logical reason on the premise of a certain fact and the inevitable reason or base specifically. unless the partner's action or way of thinking can not be understood sensibly, it has a blamable nuance.

Third, although '*wakedewanai*', '*wakeniwaikanai*', '*wakeganai*' all gave a form in common and represent the previous fact negatively, each has a different meaning specifically. First, '*wakedewanai*' is a negative expression used in the case of indicating that the matter through a logical reason from a certain premise does not actually be made. Second, '*wakeniwaikanai*' is a negative expression indicating the inevitability because it has a factor that interrupts speaker's action or will. Finally, '*wakeganai*' is a negative expression used in the case of insisting the fact that is unrealizable by a logical reason. That means "be unreasonable" expressed by the meaning of a practical noun "reason", "logic".

